

주요국 예산안 2007 :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1. 세계 거시경제 동향

OECD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

※ 다만, 미국발 경제 침체시 동반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제성장 견인의 3축

- ① 미국경제는 주택건설부문과 자동차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로 성장세 회복 예측
- ② 유로지역은 내수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의 확실한 극복 전망
- ③ 신흥개도국의 성장은 유가하락과 금융시장 호조에 힘입어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작용

통화정책은 각 나라의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상이

- (미국) 다소 긴축적. 물가상승 압력 있을 경우 '07년 말 긴축기조 완화 가능성
-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2% 유지를 위해 긴축기조 유지
- (일본) 확실한 디플레이션 탈피가 판단됨에 따라 제로금리 포기, 정책 금리 0.25%로 인상('06.7)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

- '05~'06년 동안 상당수 OECD 회원국의 세입이 예측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재정수지 적자 완화

- 그러나 각국 정부는 이러한 세입증대를 항구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고령화 등을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

2. 재정위험 요인

- 지속적인 세계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3대 재정위험요인이 존재
 - ① 글로벌 불균형
 - ② 부동산 시장 거품
 - ③ 유가 불안정 가능성
-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글로벌 불균형)와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거품
 -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 급격한 환율변동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및 건설시장에 타격을 주고, 이로 인한 전반적 내수침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미국 주택가격 하락시 유럽에도 영향을 주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나, 회복은 미국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
-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유가 변동 가능성
 - 정제능력 향상과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 사용으로 국제유가는 하락 전망
 - 그러나 OPEC의 원유 공급능력 향상과 비OPEC국가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수요증가로 석유가격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 존재

3. 주요국 재정수지 동향

가. 재정수지 동향

- '02년 이후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 전반적으로 적자 폭 증대
(표 5-1, 5-2의 IMF 재정수지 통계 참조)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뉴질랜드, 호주 등 일부국 흑자

- '05~'06년 소폭의 재정수지 개선 기미가 있으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IMF는 전망

나. 재정운용 방향

- IMF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개혁 필요성 지적
 - (독일) '07년 공공부문 채용과 사회이전지출 제한 및 VAT(부가가치세) 인상 등 재정긴축 정책 마련
 - (일본)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개인소득세 한시적 감면 단계적 폐지, 법인세 수입 제고, 지출감축 노력 경주
 - (미국) 저축증대, 경상수지 적자 감소 등 필요성이 증대되는 특정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

- 또한, IMF는 재정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기재정목표 설정시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의료부문 지출관리 대책 포함을 요구

<표 1-1> 재정수지¹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일반정부 재정수지										
선진국	-1.4	-1.0	-	-1.5	-3.3	-3.9	-3.3	-2.7	-2.3	-2.3
미국	0.4	0.9	1.6	-0.4	-3.8	-4.8	-4.6	-3.7	-3.1	-3.2
유로지역	-2.3	-1.3	-1.0	-1.9	-2.6	-3.0	-2.7	-2.2	-2.0	-1.9
독일	-2.2	-1.5	1.3	-2.8	-3.7	-4.0	-3.7	-3.3	-2.9	-2.4
프랑스	-2.6	-1.7	-1.5	-1.6	-3.2	-4.2	-3.7	-2.9	-2.7	-2.6
이탈리아	-2.8	-1.7	-0.7	-3.1	-2.9	-3.4	-3.4	-4.1	-4.0	-4.1
스페인	-3.0	-1.1	-0.9	-0.5	-0.3	-	-0.1	1.1	1.3	0.9
네덜란드	-0.8	0.7	2.2	-0.3	-2.0	-3.2	-2.1	-0.1	-0.8	-0.8
벨기에	-0.8	-0.5	0.1	0.6	-	0.1	-	0.1	-	-0.7
오스트리아	-2.4	-2.3	-1.6	-0.1	-0.7	-1.7	-1.2	-1.6	-1.8	-0.9
핀란드	1.7	1.6	6.9	5.0	4.1	2.3	2.1	2.5	2.7	3.3
그리스	-4.3	-3.5	-4.0	-6.0	-4.9	-5.8	-6.9	-4.5	-2.8	-2.7
포르투갈	-2.4	-2.7	-2.7	-4.3	-4.2	-5.5	-5.3	-6.0	-4.6	-3.7
아일랜드	2.5	2.4	4.4	0.7	-0.4	0.2	1.5	1.0	0.7	-0.4
룩셈부르크	3.2	3.3	5.9	5.9	2.0	0.2	-1.1	-1.9	-1.7	-1.9
일본	-5.6	-7.5	-7.7	-6.4	-8.2	-8.1	-6.3	-5.6	-5.2	-4.9
영국	0.1	1.2	1.7	1.0	-1.6	-3.3	-3.2	-3.3	-3.2	-2.8
캐나다	0.1	1.6	2.9	0.7	-0.1	-	0.7	1.7	1.1	1.0
한국	-3.9	-2.5	1.1	0.6	2.3	2.7	2.3	2.1	2.4	2.5
호주	0.8	1.7	1.4	0.1	0.3	1.1	1.7	2.3	2.2	2.0
대만	-3.2	-5.7	-4.5	-6.4	-4.3	-2.8	-2.9	-2.4	-1.7	-1.7
스웨덴	1.9	2.3	5.0	2.6	-0.5	-0.1	1.0	1.4	0.7	1.1
스위스	-1.5	-0.6	2.2	-	-1.2	-1.4	-1.2	-0.6	-1.0	-0.8
홍콩	-1.8	0.8	-0.6	-4.9	-4.8	-3.3	-0.3	1.0	0.5	0.7
덴마크	-	1.4	2.3	1.2	0.2	-0.1	1.7	3.9	2.6	2.5
노르웨이	3.6	6.2	15.6	13.6	9.3	7.5	11.4	16.2	17.7	20.4
이스라엘	-3.7	-4.2	-2.0	-4.0	-4.3	-6.7	-5.1	-2.7	-3.0	-3.0
싱가폴	3.6	4.6	7.9	4.8	4.0	5.7	6.0	6.0	4.3	4.5
뉴질랜드	2.1	1.5	1.2	1.6	1.7	3.4	4.6	4.8	4.4	3.0
사이프러스	-4.2	-4.4	-2.4	-2.3	-4.5	-6.3	-4.1	-2.4	-2.2	-1.6
아이스랜드	0.5	2.3	2.4	0.2	-0.8	-2.0	0.3	3.2	2.1	-0.8
주요 선진국	-1.4	-1.1	-0.2	-1.7	-4.0	-4.8	-4.3	-3.6	-3.2	-3.2
아시아 신흥공업국	-2.9	-2.8	-0.5	-2.1	-0.5	0.4	0.5	0.8	1.0	1.1
사회보장 제외										
미국	-0.3	-0.2	0.5	-1.3	-4.3	-5.2	-5.0	-4.2	-3.5	-3.7
일본	-7.0	-8.5	-8.2	-6.5	-7.9	-8.2	-6.6	-5.3	-4.8	-4.6
독일	-2.3	-1.7	1.3	-2.6	-3.4	-3.6	-3.6	-2.9	-2.2	-1.3
프랑스	-2.5	-2.0	-1.9	-2.0	-2.9	-3.6	-2.7	-2.7	-1.9	-1.4
이탈리아	1.3	2.6	3.2	0.8	1.2	0.7	0.8	0.1	0.5	0.4
캐나다	2.7	3.9	4.8	2.4	1.4	1.4	2.1	3.3	2.6	2.6

주) 1. GDP 대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표 1-1> 재정수지¹(계속)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앙정부 재정수지										
선진국	-0.9	-1.0	0.1	-1.0	-2.4	-3.1	-2.8	-2.3	-2.1	-2.1
미국	0.5	1.1	1.9	0.4	-2.6	-3.8	-3.7	-2.9	-2.5	-2.8
유로지역	-2.2	-1.7	-0.4	-1.6	-2.0	-2.3	-2.4	-2.0	-1.8	-1.7
독일	-1.8	-1.5	1.4	-1.3	-1.7	-1.8	-2.3	-2.5	-1.9	-1.7
프랑스	-2.9	-2.6	-2.5	-2.4	-3.6	-3.9	-3.2	-3.0	-2.5	-2.1
이탈리아	-2.6	-1.4	-1.0	-2.9	-2.8	-2.6	-3.1	-3.8	-3.7	-3.7
스페인	-2.3	-1.0	-1.0	-0.6	-0.5	-0.3	-1.2	0.4	0.5	0.3
일본	-3.5	-8.2	-6.7	-6.1	-6.7	-6.8	-5.8	-5.4	-5.2	-5.1
영국	0.1	1.2	1.8	0.9	-1.8	-3.6	-3.2	-3.1	-3.1	-2.8
캐나다	0.8	0.9	1.9	1.1	0.8	0.1	0.6	0.4	0.3	0.2
기타 선진국	-0.2	0.2	1.5	0.5	0.4	0.6	1.2	1.8	1.7	1.8
주요 선진국	-0.9	-1.2	-0.1	-1.2	-3.0	-3.8	-3.5	-3.2	-2.8	-2.9
아시아 신흥공업국	-1.1	-0.8	0.2	-0.7	0.3	0.4	0.7	0.9	1.0	1.1

주) 1. GDP 대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표 1-2> 구조적 재정수지¹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선진국	-1.5	-1.4	-1.3	-1.9	-3.4	-3.7	-3.4	-2.8	-2.6	-2.5
미국	-0.7	-0.6	0.1	-1.1	-3.8	-4.5	-4.4	-3.6	-3.1	-3.2
유로지역	-1.8	-1.3	-1.7	-2.4	-2.6	-2.7	-2.4	-2.0	-1.7	-1.6
독일	-1.3	-0.9	-1.2	-2.8	-3.3	-3.3	-3.3	-3.0	-2.6	-2.1
프랑스	-1.8	-1.4	-2.1	-2.2	-3.1	-3.5	-3.0	-2.2	-1.8	-1.8
이탈리아	-3.1	-1.9	-3.0	-4.4	-4.1	-3.5	-3.5	-3.4	-3.3	-3.4
스페인	-2.8	-1.4	-1.6	-1.2	-0.3	0.1	0.8	1.1	1.3	1.0
네덜란드	-1.4	-0.7	-0.2	-1.2	-2.3	-2.6	-1.5	-0.3	-0.5	-0.9
벨기에	-0.6	-1.0	-1.5	-0.7	-0.4	-1.3	0.3	0.7	0.1	-0.5
오스트리아	-2.6	-2.7	-3.4	-0.8	-0.5	-0.6	-0.9	-1.4	-1.9	-0.9
핀란드	2.0	2.0	6.7	4.8	4.4	3.1	2.5	2.9	2.7	3.3
그리스	-2.5	-2.0	-3.7	-6.4	-5.3	-6.5	-8.1	-5.6	-3.8	-3.8
포르투갈	-2.7	-3.5	-4.6	-1.2	-0.4	-2.8	-3.0	-5.4	-3.8	-3.1
아일랜드	1.8	0.8	2.5	-0.5	-1.1	0.5	1.9	1.0	0.5	-0.7
일본	-4.9	-6.3	-7.2	-5.7	-6.9	-7.0	-5.5	-5.2	-5.1	-5.0
영국	0.1	1.1	1.5	0.5	-1.9	-3.3	-3.4	-3.2	-3.1	-2.8
캐나다	0.5	1.3	2.0	0.4	-0.2	0.3	0.9	1.8	1.1	1.0
기타 선진국	-0.1	0.5	1.2	0.7	-	0.3	0.8	1.3	0.9	0.8
호주	0.7	1.5	1.3	0.1	0.3	1.1	1.6	2.3	2.2	2.0
스웨덴	2.7	2.0	4.6	3.2	0.6	1.2	1.9	2.2	1.0	1.1
덴마크	-1.2	0.1	0.8	1.1	0.4	0.7	0.8	1.7	1.5	1.6
노르웨이	-4.5	-3.7	-2.4	-1.1	-3.8	-5.8	-4.5	-3.5	-4.3	-4.4
뉴질랜드	1.8	0.9	1.3	2.1	3.2	4.2	4.8	4.8	4.0	3.3
주요선진국	-1.6	-1.5	-1.5	-2.2	-3.9	-4.3	-4.0	-3.4	-3.1	-3.1

주) 1. 잠재 GDP 대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1. 요약

□ 총 10개국 사례를 재정수지 현황에 따라 분석

○ 재정수지 적자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 (6개국)

○ 재정수지 흑자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4개국)

가. 재정수지 적자국 재정운용 현황

○ 주요 재정수지 적자국(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최근 적자규모 감소 추세

○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으로

① 지출삭감, ②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③ 성과평가 강화 등 시행

○ 주요 지출 분야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① 경제성장 분야(교육, R&D 등), ② 복지지출(사회보장, 고용 등) 등으로 요약 가능

- 단, 미국은 장기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지지출(Medicare, Medicaid 등)에 대한 지출 억제

○ 세제부문은 각 나라의 정책기조에 따라 증세 또는 감세 구분 가능

- (증세) 독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지침(재정적자 경상 GDP 대비

3% 이내) 준수를 위해 VAT(부가가치세) 인상

- (감세) 미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 임금상승에 대한 감세정책 효과를 강조, 감세정책 영구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

나. 재정수지 흑자국 재정운용 현황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로 영연방 국가임
 - (캐나다) 복지지출 증대
 - ① 부채상환, ② 감세, ③ 보건·의료, 이전지출 등
 - (호주) 개인소득세 감면과 SOC 투자 확대
 - (뉴질랜드) 도로 등 SOC 투자 및 보건·복지지출 확대, 국가부채 관리 강화
- 흑자국의 주요 지출분야 역시 적자국과 유사하게 경제성장 분야와 보건·복지부문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
 - 그러나 세 나라 모두 재정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재원의 지출관리 강조
- 세계부문은 감세기조
 - (캐나다) 판매소비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감면 확대 예정
 - (호주) 세율인하, 기준소득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소득세 인하조치와 가족 및 노령층에 대한 감세혜택

- (뉴질랜드) 중·저소득층 대상 제도인 Working for Families 제도의 세율인하, 기준소득수준 인상

2. 주요국가별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가. 미국(FY '08년: '07.10월 ~ '08.9월)

FY 2008 예산안은 영구적 감세조치, 의료·복지 예산 감축, 對 테러전과 국가안보 등 국방예산 대폭 증액이 주요특징

□ 경제 및 재정전망

- 연준(FRB)의 통화정책 변경과 최근 주택경기 둔화는 올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견고한 성장세 회복
- 단계적 재정적자 규모 축소로 2012년까지 610억 달러(GDP 대비 0.3%)의 흑자재정 달성 제시

<표 II-1> 미국 경제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 GDP 증가율	2.7	3.0	3.1	3.0	3.0	2.9
소비자물가지수(CPI)	2.1	2.6	2.5	2.4	2.3	2.3
91일 만기 국채 수익률	4.7	4.6	4.4	4.2	4.1	4.1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5.0	5.1	5.2	5.3	5.3	5.3

자료)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08

<표 11-2> 미국 재정 전망¹⁾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입	18.5	18.3	18.3	18.3	18.3	18.6
세출	20.2	20.0	19.5	18.9	18.6	18.3
재정수지	-1.8	-1.6	-1.2	-0.6	-0.3	0.3

주) 1. GDP 대비

자료)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08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08년 예산안은 정부지출 합리화와 견고한 경제성장세 유지를 목적으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기조로 하여 작성

① 성장친화적 정책과 지출 억제를 통한 균형예산 지향

- 부시행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 임금상승에 대한 감세정책의 효과를 강조, 감세정책 영구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
- 지출 증가 제한, 지출 합리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등 지출 억제 노력으로 2012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② 지정예산(earmark)* 관행 척결

* 끼워 넣기 식 예산

- '05년 한해 지정예산 항목은 1만 3천건 이상, 액수로는 180억 달러에 육박
- 지정예산의 90% 이상이 정식 법안이 아닌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의회표결이나 대통령 승인이 이루어 지지 않음
- 현 회기 말까지 지정예산의 건수와 비용을 절반으로 축소

③ Medicare, Medicaid, 사회보장 등 복지부문 법정지출(entitlement programs) 개혁

- 미국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Medicare, Medicaid, 사회보장 지출 등 법정지출을 향후 5년간 960억 달러 절감

④ 비안보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을 1%로 유지

-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감시·감찰 활동 강화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08 회계연도 총 세입은 '07년 대비 4.8% 증가한 2조 6,625억 달러 전망
- 총지출 2조 9천억 달러 규모의 FY 2008 예산안은 국방예산 대폭 증대와 의료·복지 비용 감축 계획이 주요 특징
 - FY '08년 국방 예산안은 '07년(4,393억 달러) 대비 9.6% 증가한 4,814억 달러
 - Medicare 향후 5년간 660억 달러 절감, Medicaid 향후 5년간 약 68억 달러 절감 계획

<표 II-3> FY 2008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국방	기타 안보	비안보 재량지출	Medicaid and Medicare	사회보장	Net interest	기타 비재량지출
16.6	6.1	15.7	20.5	21.0	9.0	11.2

자료)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08

□ 기타

- 조세순응도를 높이고, 과세되었으나 징수되지 않은 세금(tax gap)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간소화
 - 택스 갭(Tax gap)은 '01년 3천450억 달러로 추산되며,
 - 이러한 미수세금은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더라도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투입자금 확보가 가능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

나. 일본(FY '07년: '07.4월 ~ '08.3월)

FY 2007 예산안은 세출개혁 강화의 일환으로 지출삭감과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경제성장 증진과 빈부격차 해소 및 저출산 대책 등에 중점지원

□ 경제 및 재정전망

- '02년 이후 경기회복과 지속적 성장세를 계기로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였으며 중장기 재정건전화 목표 추진

<표 II-4> 일본 경제 전망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증가율	0.1	1.8	2.3	2.7	2.8	2.0	2.0
소비자물가지수(CPI)	-0.9	-0.3	0.0	-0.6	0.3	0.3	0.8
3개월 CD 금리	0.1	0.0	0.0	0.0	0.2	0.4	0.9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3	1.0	1.5	1.4	1.8	2.1	2.7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표 II-5> 일본 재정 전망¹⁾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정부 세입	30.8	30.5	31.0	31.7	31.7	32.2	32.6
일반정부 세출	39.0	38.5	37.3	37.0	36.3	36.2	36.3
일반정부 재정수지	-8.2	-8.0	-6.3	-5.3	-4.6	-4.0	-3.7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6.7	-6.6	-4.9	-3.9	-3.2	-2.5	-1.9

주) 1. GDP 대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세출개혁 강화의 일환으로 「기본방침 2006」에 의거한 지출삭감과 제도개선 실시, 경제성장과 저출산 대책 등 중점지원
 - (지출삭감) 고용보험 국가 부담액, 공무원인건비, 지방재정 등 분야에서 세출증가 억제
 - (제도개선) 특별회계 개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 (예산배분 중점화) 경제성장 증진과 재도전(빈부격차 해소 대책) 지원, 저출산 대책과 교육재생 분야에 중점적 예산배분
 - (재정사업 평가) 예산집행조사와 정부계약의 합리화, 결산관련 국회·회계감사원 검사결과의 예산반영 강화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소득세·법인세의 대폭 증가로 '06년 대비 조세수입은 16.5%증가한 53조 4,670억엔
 - 일반세출예산에서 사회보장·에너지대책비 등 증액, 반면 공공사업·공무원연금·ODA 등 축소로 전년대비 총 1.3%증액(약 6,124억엔)

<표 II-6> FY 2007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국방	교육	과학	사회보장
10.2	8.4	2.9	45.0

자료) Ministry of Finance, 『Highlights of the Budget for FY 2007』, December 2006, Japan

- 기타
 - 대규모 국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07년 GDP 대비 국채잔고비율이 148%로 전망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일본의 대규모 국채문제는 90년대 이후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으로 초래
 - FY 2007년 예산안에서는 신규공채발행을 4.5조엔 감액, 국채의존도는 30.7%(FY 2006: 37.6%)로 낮출 계획

다. 독일(FY '07년 : '07.1월 ~ '07.12월)

독일의 2007 회계연도 예산기조의 핵심은 교육 및 R&D와 사회보장 혜택에
중점

□ 경제 및 재정전망

- '07년 수출 둔화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 1%대로 하락 전망
- 재정적자는 '07년 GDP대비 1.4%로 감소 전망으로 마스트리히트 조약
지침 준수 예정(재정적자 경상 GDP 대비 3%이내)

<표 II-7> 독일 경제 전망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증가율	0.8	1.1	2.6	1.8	2.1
HICP ¹	1.8	1.9	1.7	1.9	1.0
3개월 은행간 금리	2.1	2.2	3.1	3.8	4.0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0	3.4	3.8	4.0	4.2

주) 1.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표 II-8> 독일 재정 전망¹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정부 세입	43.6	43.6	43.6	43.7	43.5
일반정부 세출	47.3	46.8	45.9	45.1	44.8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2	-2.3	-1.4	-1.3

주) 1. GDP 대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FY '07년 예산의 핵심기조는 교육 및 R&D와 사회보장 혜택에 중점
 - '07년 연방 정부는 “High-Tech-Strategie Deutschland” 혁신전략 도입: 교육 및 R&D 분야에 85.6억 유로 (총 재정세출의 3.2%) 투자
 - 총 재정세출 중 약 774억 유로(28%)를 사회보장연금 기금에 배분(기능별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연방 정부의 실업보험에 대한 기여분이 4.5%로 하락, 노년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노년층의 취업 보조금 2.32억 유로 배정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07년 조세수입은 약 2,145억 유로 예정 ('06년 대비 205억 유로 증가)
-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07년 약 1230억 유로가 배정되면서, 총 세출의 거의 절반(45.7%)을 차지
 - 사회보장 관련 지출 중 연금 기금은 약 774억 유로, 가족지원 기금에 42억 유로 배정
- '07년 연방 철도, 국도 및 수로에 1천 7백만 유로 투자

<표 II-9> FY 2007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국방	근로 및 사회보장	교통·건설	교육 및 연구개발	연방정부 부채
8.7	45.7	9.0	3.2	15.1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Finanzplan des Bundes 2006 bis 2010』, August 2006, Germany

□ 기타

- 마스트리히트 조약 지침 준수 노력: VAT(부가가치세) 인상('06.6)
 -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준수하기 위해 표준 VAT 세율을 16%에서 19%로 3%p 인상('07. 1)
 - 약 194억 유로의 세수 증가로 재정적자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나, VAT 인상은 소비 위축, 물가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 초래 가능성 有

라. 프랑스(FY '07년 : '07.1월 ~ '07.12월)

재정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정부지출 통제로 재정적자 감소에 노력, '07년 프랑스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지침(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 준수 전망

□ 경제 및 재정전망

- 실업률 감소로 인한 내수 진작으로 '07년 2~2.5% 경제성장 전망
- 정부부채 감소와 지출 통제 노력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여 재정적자는 '06년 GDP 대비 2.7%에서 '07년 2.5%로 감소 전망

<표 II-10> 프랑스 경제 전망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증가율	2.0	1.2	2.1	2.2	2.3
HICP ¹	2.3	1.9	2.0	1.4	1.6
3개월 은행간 금리	2.1	2.2	3.1	3.8	4.0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1	3.4	3.8	4.0	4.2

주) 1.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표 II-11> 프랑스 재정 전망¹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정부 세입	49.6	51.0	51.1	51.0	51.0
일반정부 세출	53.3	53.9	53.8	53.5	53.3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2.9	-2.7	-2.5	-2.3

주) 1. GDP 대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적자 감소

- 공무원 수 감소 등 공공지출 통제 강화로, 정부지출은 '06년에 비해 0.5%p 감소 전망
 - GDP 대비 정부지출: ('06) 14.9% → ('07) 14.4%
- '07년 재정적자는 416억 유로('06년 예산에 비해 11억 유로 감소, 지난 4년 동안 150억 유로 감소)
 - 재정적자 추이(단위: 십억 유로): ('03) 56.9 → ('04) 43.9 → ('05) 43.5 → ('06) 42.7 → ('07) 41.6
- 국가부채를 감소 노력으로 GDP 대비 누적부채 비율은 '05년 이후 감소 추세
 - GDP 대비 누적부채비율: ('05) 66.6% → ('06) 64.6% → ('07) 63.6%

□ 세입 및 주요 예산 계획

- '07년 세입은 총 2,259억 유로('06년 예산안 대비 약 51억 유로 증가)
 - '07년 예산안은 '06년 조세개혁에 큰 영향, 세입과 사회보장기금 수입 증가 등이 그 주요내용
- 주요 지출 분야: 고용 증진, 연구 및 교육 투자, 국가안보와 치안, 사회복지 분야 등

<표 II-12> FY 2007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국방	교육	복지	노인복지	R&D	노동(취업)
13.5	22.2	4.6	2.7	8.0	4.7

자료) <http://www.performance-publique.gouv.fr>

주) 중앙정부지출 기준임. 프랑스 공공부문지출은 통상 4부문으로 분류되어 발표되며, 2005년 기준으로 1.중앙정부지출(GDP대비 22.7%), 2.지방정부지출(11.0%), 3.사회보장(24.7%), 4.산하기관(3.5%)임. 즉 공공부문 총지출은 GDP대비 53.8%이며, 이중 약 46%가 사회보장지출임.

□ 기타

- 소득세 감소정책, 부의소득세(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증가, 중소기업지원 정책 등을 통해 고용과 구매력을 진작함으로써 지속적인 내수경기 활성화 추구

마. 영국(FY '06/07 : '06.4월 ~ '07.3월)

최근의 재정수입 증대와 지출증가 억제로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08/09년 이후 흑자 전환 전망

□ 경제 및 재정전망

- '06/07년 영국 경제는 '05/06년의 단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률이 '00~'04년 평균수준인 2.75%를 기록할 전망
- '06/07 경상 재정수지는 '05/06(-1.2%)에 비해 개선된 GDP대비 -0.6% 전망

<표 II-13> 영국 경제 전망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질 GDP 증가율	1.75	2.75	2.75~3.25	2.5~3.0	2.5~3.0
소비자물가지수(CPI)	2.25	2.5	2.0	2.0	2.0
3개월 은행간 금리 ¹	4.7	4.8	5.0	4.8	n.a.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¹	4.4	4.5	4.7	4.8	n.a.

주) 1.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자료) HM Treasury, 『Pre-Budget Report』, December 2006, United Kingdom

<표 II-14> 영국 재정 전망¹

(단위: %)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경상 세입	39.2	39.7	40.2	40.4	40.4	40.4	40.4
경상 세출	40.4	40.3	40.3	40.1	39.9	39.8	39.6
경상 재정수지	-1.2	-0.6	-0.1	0.3	0.5	0.6	0.8

주) 1. GDP 대비

자료) HM Treasury, 『Pre-Budget Report』, December 2006, United Kingdom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 영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잠재력에 투자(Investing in Britain's Potential : Building our long-term future)라는 큰 기조아래,

- ① 거시안정성 유지 ② 생산성제고 ③ 고용기회 확대 ④ 사회 형평성 제고
- ⑤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⑥ 환경보호 등 6가지 세부적인 재정목표 제시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06/07년 경상세입 추정치는 5억 1,790만 파운드(GDP 대비 39.7%)

○ 총관리지출(TME) = 연간관리지출(AME) + 부처별지출한도(DEL)

- 총관리지출(TME)은 '05/06년 5억 2,280만 파운드에서 '06/07년 5억 5,460만 파운드로 약 6.1% 증가

- 연간관리지출(AME)은 법정지출을 포함한 고정비 성격의 지출로, '05/06년 2억 2,030만 파운드에서 '06/07년 2억 2,930만 파운드 (TME의 41.3%)로 약 4.1% 증가

- 부처별 지출 상한액(DEL)은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서, FY '05/06년 3억 260만 파운드에서 '06/07년 3억 2,530만 파운드(TME의 58.7%)로 약 7.5% 증가

○ '06/07년 부처별 경상 및 자본지출 지출한도액은 보건·의료, 교육 담당부처의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

<표 II-15> FY 2006-07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교육	보건·의료	국방
경상지출	18.1	27.8	11.5
자본지출	14.8	12.4	17.4

주) 부처별 지출한도(DEL) 기준

자료) HM Treasury, 『Pre-Budget Report』, December 2006, United Kingdom

바. 인도(FY '06/07년 : '06.4월 ~ '07.3월)

농어촌 고용증진, 교육, 건강복지를 포함한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SOC 등 지원

□ 경제 및 재정전망

- FY '06/07년 8.9%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인도의 GDP 규모는 올해 8,400억 달러 기록 예상(IMF)
- 경상수지 적자, 물가상승, 재정 리스크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예산안에 제시된 정책구상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중기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

<표 II-16> 인도 주요 재정지표 전망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증가율	8.5	8.5	8.0	7.5	7.0
재정수지 ¹	-7.7	-7.7	-6.7	-6.3	-6.0
소비자물가지수(CPI)	3.2	4.4	6.1	5.8	5.5
Mumbai 3 month offered rate	5.0	6.0	7.3	7.7	7.7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6.5	7.2	7.7	7.9	7.9

주) 1. GDP 대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농어촌 고용증진, 교육, 건강복지를 포함한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SOC 등 지원

- 국가 농어촌 지역 고용 보장 계획, 추가 교실 건축과 신규교사 채용 등 교육사업(Sarva Sikha Abhiyan) 추진
- 농업(관개사업, 용자), 제조업(섬유, 식품가공, 석유화학), 서비스업(관광, 소프트웨어), SOC(통신, 전력) 등 지원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인세와 서비스세 세입 증가, 지방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수입 증가
- 빈곤선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100일간 근무할 자격이 주어지는 등 늘어난 세수로 복지지출 증대

사. 중국('06년)

대폭적인 세입 증대와 명목 GDP를 약간 상회하는 지출증가로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전망

- 재정수입: '06년 대인세와 법인세 증가를 반영, 8월까지 정부세입 대폭 증가
- 재정지출: 사회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은 명목 GDP 증가율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 따라서 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로 돌아설 전망
 -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증가와 예산외 기금의 소폭 흑자로, '06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1.5%를 기록할 전망

<표 II-17> 중국 주요 재정지표 전망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증가율	10.1	10.2	10.6	10.3	10.7
재정수지 ¹	0.0	0.2	1.5	1.0	0.9
소비자물가지수(CPI)	3.9	1.8	1.4	1.0	1.1
인플레이션	6.9	3.8	2.2	1.8	2.0
경상수지 ¹	3.6	7.2	8.3	8.5	8.8

주) 1. GDP 대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 '05년 예산집행과 주요 재정사업
 - 재정정책의 신뢰성 제고
 - 인플레이션 관리, 농업, 교육, 과학·문화, 환경보호 등 사회인프라 구축,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 구조 조정 필요

○ 취약부분 지원으로 균형발전 촉진

- '04년 감행한 농업세 면제 및 세율인하 정책을 발전시켜 점차적으로 '06년부터 모든 농업세를 취소하고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도 지불
- 중앙 재정으로 교육, 과학, 기술, 위생, 산아제한 등 사회의 발전의 취약 부분을 지출 증가
- 적극적인 취업 정책 실시 및 도시와 농촌취업을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실업 규모 통제

○ 세수 확보 및 세출 개혁

- 법에 의한 재정수입 재정비로 수입 안정화 추구
 - 1) 밀수, 탈세 등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적극적인 세관수입의 확대 노력
 - 2) 복권 수입 등을 통해 수입 안정에 기여
- 회의비용, 접대비 등 업무비용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불필요한 자금 낭비 방지

아. 캐나다(FY '06/07년: '06.4월 ~ '07.3월)

견고한 재정수지 흑자 지속으로 연방정부 부채상환과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이와 함께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지출 관리 정책 시행

□ 경제 및 재정전망

- 캐나다 통화 강세로 '06년 교역조건이 악화('01년 이후 처음) 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대폭 감소
- 재정상황은 견고한 재정수지 흑자 지속 전망

<표 II-18> 캐나다 경제 전망

(단위: %)

	2006	2007	2008	2009~11 평균
실질 GDP 증가율	2.8	2.7	3.0	3.0
GDP inflation	2.1	1.9	1.9	1.7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	4.1	3.9	4.2	4.3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3	4.3	4.6	5.0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The Economic and Fiscal Update』, 2006, Canada

<표 II-19> 캐나다 재정 전망¹

(단위: %)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세입	15.9	15.8	15.5	15.3	15.3	15.3
세출	15.4	15.3	15.1	15.0	14.7	14.5
재정수지	0.5	0.5	0.4	0.3	0.6	0.8

주) 1. GDP 대비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The Economic and Fiscal Update』, 2006, Canada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부채감소, 조세감면,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지출성장률 억제, 보건·의료 강화 등 복지지출 증대
 - ① 재정수지 흑자분으로 매년 30억 캐나다 달러씩 연방정부 부채를 상환하여 '13/14년까지 GDP 대비 25%로 낮출 계획
 - ② 개인소득세, 법인세 감면 제안
 - ③ 재정사업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지출감축 계획
 - ④ 의료보험 강화 10개년 계획 이행, 균형발전과 지방 재정지원 등을 위한 주정부 지원금 증액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06 회계연도 총 세입은 '05년 대비 2.8% 증가한 2,271억 5천만 캐나다 달러(GDP 대비 15.7%) 전망
- 노인급여, 고용보험급여가 총 지출에서 각각 16.2%, 7.7% 차지
- 보건·의료 외 기타 사업에 관한 중앙정부 이전지출은 총 지출 중 15.2% 차지

<표 II-20> FY 2006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노인급여	고용보험급여	보건·의료 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¹
16.2	7.7	15.2	9.8

주) 1. Department of Finance, 『The Budget Plan 2006』, 2006, Canada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The Economic and Fiscal Update』, 2006, Canada

□ 기타

- 흑자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 OECD 역시 캐나다 연방정부는 고령화 압력이 심해지기 전에 부채감소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

자. 호주(FY '06/07년 : '06.7월 ~ '07.6월)

견고한 흑자재정을 기초로 '06/07예산안에서는 소득세 감면과 SOC 지출을 증가시킬 계획

□ 경제 및 재정전망

- FY '06/07년 호주경제는 기업투자 증가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3.25%의 경제성장 예상
- FY '06/07년에는 103억불 재정흑자(GDP 대비 1%)가 예상되며, 정부 순부채 해소로 순이자지급액이 '06/07년 5억 호주달러(GDP의 약 0%)로 감소

<표 II-21> 호주 경제 전망

(단위: %)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실질 GDP 증가율	2.5	3.25	3.5	3.25	3.25
소비자물가지수(CPI)	3.0	2.75	2.5	2.5	2.5
고용률	2.0	1.0	1.5	1.25	1.25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06-07 Budget Overview』, May 2006

<표 II-22> 호주 재정 전망¹

(단위: %)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세입	23.3	23.0	22.9	23.0	23.0
세출	21.6	21.8	21.9	22.0	21.9
재정수지(Fiscal balance)	1.7	1.0	0.9	1.0	1.1
현금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1.5	1.1	1.0	1.0	1.0

주) 1. GDP 대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06-07 Budget Overview』, May 2006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경제성장이 국민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기조아래,

- ① 국민연금, 개인소득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세 개혁
 - 국민연금 시스템 간소화, 개인소득세 향후 4년간 367억 호주 달러 감면, 중소기업에 4억 3500만 조세감면 등 조세개혁 추진
- ② 철도, 도로 등 SOC 확충
 - 도로와 철도 건설에 23억 호주 달러 추가 지원
- ③ 보건·의료 분야 지출 확대 등을 계획
 - 향후 5년간 정신보건 서비스에 19억, 의사·간호사 양성에 2억 4100만, 보건·의료분야 연구에 9억 5백만 호주 달러 투자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06/07 회계연도 연방정부 총 수입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2,317억 호주 달러로 GDP대비 23%
- 호주정부는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의료 분야 지출에 큰 비중
 - 사회보장 및 복지: 918억 호주 달러로 총 세출의 41.8% 차지
 - 보건·의료: 398억 호주 달러로 총 세출의 18.1% 차지

<표 II-23> FY 2006-07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국방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및 복지	교통·통신
8.1	7.6	18.1	41.8	1.6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06-07 Budget Paper No.1』, May 2006

□ 기타: FY '06/07 세제 개편

- 개인소득세 개편: 세율인하와 기준소득 상향조정

현행 세율 기준 소득구간(A\$)	세율(%)	2006. 7. 1 이후 소득구간(A\$)	세율(%)
0-6,000	0	0-6,000	0
6,001-21,600	15	6,001-25,000	15
21,601-63,000	30	25,001-75,000	30
63,001-95,000	42	75,001-150,000	40
95,001+	47	150,001+	45

- 저소득층세액공제(LITO) 한도 상향조정(A\$235 → A\$600), Medicare 부담금 부과대상 소득한도 상향조정(개인: 16,284불, 가족: 27,478불로 조정)

차. 뉴질랜드(FY '06/07년 : '06.7월 ~ '07.6월)

SOC 및 핵심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을 증가하며, 국가부채를 GDP 대비 20% 수준으로 관리

□ 경제 및 재정전망

- 지난 5년간 약 3.5% 경제 성장을 보인 뉴질랜드는 '06년 경기 하강국면으로 진입하여 '07년 저점 기록 전망
- '07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3.6% 흑자 예상

<표 II-24> 뉴질랜드 경제 전망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질 GDP 증가율	3.7	2.1	1.0	3.3	3.5	3.1
소비자물가지수(CPI)	2.8	3.3	3.4	2.4	2.0	2.0
90-day bank bill rate ¹	6.9	7.6	7.0	6.3	6.0	5.8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6.0	5.7	5.9	5.9	6.0	6.0

주) 1. average of market rates at 11 a.m each day for bank bills with approximately 90 days to maturity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Budget 2006』, May 2006

<표 II-25> 뉴질랜드 재정 전망¹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 ²	34.5	36.3	35.1	34.2	33.5	34.2
세출 ²	30.6	32.3	32.7	32.6	32.5	32.3
재정수지	4.1	5.4	3.6	2.6	2.0	2.9

주) 1. GDP 대비, 각 연도는 6월 30일로 회계연도 마감 기준

2. 뉴질랜드 정부(Crown)는 중앙정부(Core Crown), 산하기관(Crown Entities),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으로 구성. 세입, 세출은 중앙정부 기준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Budget 2006』, May 2006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 및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

- 재정수지 흑자 유지, 국가부채는 GDP 대비 20%수준으로 관리, 노후연금펀드(NZSF) 조성·운영 등을 국가 재정법으로 지정
- 핵심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지출을 증가시키고 주요 공공 서비스 기금을 조성
- '06/07 예산안 신규 지출 3대 주요분야
 - ① R&D, SOC 등 경제 혁신(Economic Transformation) 분야
 - ② 보건·의료, 교육 등 가계 안정(Families-Young and Old) 분야
 - ③ 문화, 예술, 국방 등 국가 정체성 확립(National Identity) 분야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 '06/07년 총수입은 561억9천만 뉴질랜드 달러(GDP 대비 35.1%)
- 사회보장·복지(32%)와 보건·의료(21%) 2개 분야가 '06/07년 중앙정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음

<표 II-26> FY 2006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¹

(단위: %)

국방	보건·의료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	교통·통신
2.1	15.4	14.8	29.4	10.2

주) 1. 뉴질랜드 정부(Crown) 기준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Budget 2006』, May 2006

III. 재정운용 시스템

- ◇ 재정운용 시스템의 하드웨어: '06년 국가재정법으로 마무리된 우리의 재정운용 시스템은 외형적 체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잘 정비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 ◇ 소프트웨어 보강의 필요성: 시스템 운용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 재정위험 관리 등 보완적 과제를 향후 추진할 필요

1. 재정혁신의 평가

□ 해외동향

- 재정운용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특이한 변동이 없음
 - OECD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재정운용 시스템을 정비
 - 대부분 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 등 재정위기의 대응책으로 시행
 - 중기재정제도 강화, 하향식 예산제도 도입, 성과주의 강화 등
 - 영연방의 일부 국가에서는 발생주의 도입 (뉴질랜드, 호주, 영국)
- ※ 일부 국가에서 최근 뒤늦은 시스템 개혁 단행
 - 프랑스: 국가재정법을 2001제정하여 단계별 도입, '06년 본격 시행
 -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성과주의 강화, 하향식 자원배분, 회계제도 개정 등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과 유사
- '06년의 국가재정법으로 마무리된 최근 우리나라의 4대 재정혁신은

영향에 대한 예측력 제고 및 예산편성 시 반영 등
⇒ 상기 2요인 공히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 및 하향식 예산제도
운용 상 재정 총량 및 분야·부문 한도의 안정성을 위협할 우려

2. 재정운용 시스템 보강의 향후 방향

가. 재정준칙(Fiscal Rules)의 도입 및 정착

- 재원배분 의사결정 시 사전에 정한 준칙을 따름으로써, 재원배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최대한 객관성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
 - 특히 성장률 등 주요 경제변수의 가정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며,
 - 세입 및 지출수준, 부채, 재정수지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해 구체적 목표나 한도를 공표하고 의무화
 - 재정준칙은 중기(수년)를 주기로 재검토 및 재설정될 수 있으며, 단기(매년) 또는 수시 변경은 원칙적으로 배제

-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및 사회 여건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아직 중요시됨
 - 따라서 재정준칙의 본격적 도입은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재정의 장기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향후 우리 재정 운용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제도로 검토 중

나. 법정지출제도의 사전 스크리닝 및 장기전망 강화

- 법정지출(주로 사회보장)의 성격
 - 여타 정부지출과 달리 사전에 지출규모를 정하기보다는 지출의 요건을 정하고,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수요자가 지출규모를 결정
 - 따라서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정지출 규모는 지출 의사 결정보다는 추계의 성격이 여타 지출에 비해 강함
- 따라서 중장기에 걸친 법정지출 규모의 과소 추계는 중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특히 제도의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지출 규모가 작으나, 도입 이후 지출이 급증하여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선진국에서 빈번히 발생
- 그러므로 일부 선진국(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법정지출제도 도입 및 개정 과정에서 중장기적 재정영향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토
 - 이와 같은 법정지출 사전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을 향후 추진

다. 재정위험 요인의 체계적 관리

- 재정위험 요인: 재정수지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변동 요인
 - 단기 및 중기 요인: 성장률, 환율, 금리, 임금상승률 등의 변동
 -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둔화와 소비증가 악화로 성장세 둔화 가능성
 -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자·기업의 체감경기 악화에 대비
 -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
 - 장기 요인: 고령화 등 인구학적 요인
 - 지출 증가 가속과 성장·세입 증가 둔화에 따른 재정압박
 - 기타 요인: 우발채무, 자연재해 등
 - 공공부문 및 민자협력 사업과 관련된 명시·암묵적 정부보증 등
- 상기 제반 요인에 따른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전망하여 재정

운용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

- 현재 재정당국과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이와 병행하여, 성과주의 관리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사업의 관리체계 구축 및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라. 발생주의 도입

-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향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을 중심으로 발생주의 회계의 적용범위, 산정방식, 발생주의 정보의 보고형태(예산서 등)를 검토

IV. 우리 재정정책에 주는 시사점

1. 세계경제전망

- '07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 성장세 회복 전망과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기회복 영향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전망
- 미국경제 둔화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표 IV-1> 성장률 전망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세계성장률(IMF) ¹	4.1	5.3	4.9	5.1	4.9
OECD 회원국 성장률(OECD) ¹	2.0	3.2	2.7	3.2	2.5

주) 1. 실질 GDP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OECD, Economic Outlook 80, December 2006

2. 주요국의 재정운용 추이

- 재정운용은 각국마다 상이하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 분야에 지출
- 특히 재정수지 흑자인 국가는 물론, 적자가 예상되는 다수 국가에서도 사회보장을 주요 분야로 지목하여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정
- 아울러 미래 경제성장 요소에도 집중 투자

가. 재정 총량 및 수지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출 총규모 증가가 다소 둔화되는 경향
 -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 재정수지
 - 적자국: 대부분 적자폭 감소하는 추세
 - 특히 최근 3% 이상의 수지적자를 기록했던 프랑스, 독일, 일본의 수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흑자국: 호주, 캐나다는 소폭의 재정흑자를 유지하나, '06년 5%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뉴질랜드는 향후 2~3%대로 하락할 전망

나. 자원배분

- 국가별 분류 기준이 상이하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등 복지부문에 재정의 40~60%의 지출규모를 유지
- 또한 R&D,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충 관련 지출 역시 재정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중점 투자 분야이며, 재정운용 방향에서는 SOC 투자도 강조

다. 재정운용 시스템

- 최근 선진국의 재정운용 시스템에서 특이한 변동은 없으나,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한 재정개혁 사례에 비추어,

- 우리나라는 최근 4대 재정혁신과 국가재정법 제정의 결과,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잘 정비된 재정제도를 구축하여 하드웨어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평가됨
- 향후 재정운용의 내실 제고를 위하여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되며, 이는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위험 요인 관리 등 장기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3. 우리 재정운용에의 시사점

가. 재정 총량 및 수지

- 국가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상이하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GDP 대비 2~3% 이내의 재정수지 관리를 하며, 특히 적자국의 경우 적자 폭을 감소하려는 노력 경주
 - 지출억제 및 성과관리 노력 병행
- 선진국의 현재 추세를 참조하여 재정규모의 증가 속도를 GDP 성장률 이내로 제한하려는 노력 필요

나. 자원배분

- '07년 우리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선진국 재정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 됨
- (성장동력 확충) R&D 투자, 인적자원 개발, 성장인프라 구축

-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안전 확보) 국방·재해예방 등에 대한 투자

다. 재정운용 시스템 보강

- 재정의 단·장기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
 - ① 재정준칙의 도입을 위하여 선진국 사례 분석 등 추진
 - ② 법정지출 사전 스크리닝 제도 도입 추진
 - ③ 장·단기적 재정운용의 위험요인 관리 강화 필요
 - ④ 발생주의 도입에 따른 재정투명성 제고 및 자원배분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